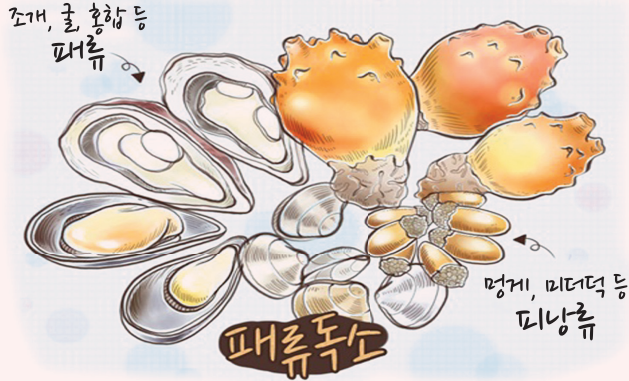


봄과 함께 찾아오는

▶▶▶ 패류독소 주의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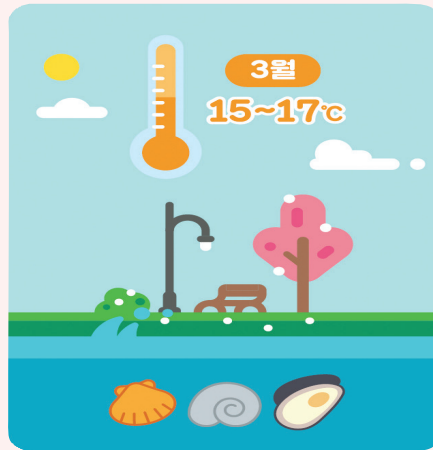


봄철(3월~6월) 바다에 서식하는 조개, 굴, 홍합 등 패류와 멍게, 미더덕 등 피낭류 내에 축적되어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, 설사, 기억상실 등의 중독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독소입니다.

🍽️ 패류독소의 발생 및 소멸



매년 3월부터 남해
⇒ 동·서해안 확산



해수온도가
15~17°C일때 최고치



6월 중순경(18°C 이상
상승)에는 자연 소멸

🍽️ 중독예방 및 주의사항



‘패류채취 금지 해역’에서
패류 채취 및 섭취 금지(특히 3~6월)



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,
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진료 받기